

섬과 예술이 만나는 공간 '1섬 1뮤지엄 프로젝트'

자치CEO

박우량
신안군수



지난 11월 15일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 예술가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기자회견이 서울에서 열렸다. 신안 도초도에 설치된 '대지의 미술관', 작품명 '숨결의 지구'를 개관하고, 작가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자리였다. 신안군은 기획부터 뮤지엄 완성까지 6년간 노력의 결실인 이 뮤지엄을 선보이며, '1섬 1뮤지엄 프로젝트'에도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신안군은 1028개의 섬으로 이뤄진 지역 특성으로 말미암아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침체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우리 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과 다른', '최초'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로서 '1섬 1뮤지엄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됐다.

세계 유수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4대 뮤지엄을 중심으로 30개의 뮤지엄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실현해 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올라퍼 엘리아슨의 '대지의 미술관'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플로팅 뮤지엄

(Floating Museum)'도 내년 상반기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플로팅 뮤지엄은 수화 김환기 화백의 고향 안좌도에 설치되는 전시공간으로, 일본의 조형 예술가 야나기 유키노리(Yanagi Yukinori)가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4대 뮤지엄 중 하나는 비금도의 '바다의 미술관'이다. '바다의 미술관'은 세계적인 조각가 안토니 고펠리(Antony Gormley)의 작품으로, 내년 연말이면 개관한다. 바다를 배경으로 설치된 조형물들이 섬과 자연, 예술이 어우러진 경관을 만들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4대 뮤지엄은 리움 미술관을 설계했던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와 박은선 조각가가 협업한 자은도 '박은선 조각 뮤지엄'이다. 오는 2026년 5월이면 치유의 섬 자은도와 '무한의 다리'를 배경으로 한 '박은선 조각 뮤지엄'을 만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섬 폐교와 유휴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마을 단위 미술관도 조성해 주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단순히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 '품격과 자부심을 자아내는' 공간으로 섬을 꾸어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이다.

물론 '1섬 1뮤지엄 프로젝트' 과정에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우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을 이곳 외딴섬까지 초청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신안군의 재정 또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국고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고세 등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이 천재적인 작가들의 까다롭고(?) 난해한 예술혼과 철학을 행정영역에 담아내고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면을 빌려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온, 그리고 앞으로 함께 헤쳐나갈 군의원,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현재까지 30개 뮤지엄 가운데, 19개 뮤지엄이 조성되었고, 11개소는 계획 단계이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앞으로 2027년까지 뮤지엄 프로젝트를 완성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사랑하는 '살고 싶은 섬',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섬'을 만들어가려 한다. '1섬 1뮤지엄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화·예술사업을 넘어 신안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또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에도 가장 열악한 신안군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

신안군의 이 프로젝트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고 | 강다결 국립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사학과 23학번

45년 만의 계엄령, 대학생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자신의 일상에 제약이 생긴다면 어떤 것 같나요?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사라지고 내 일상이 통제된다면,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수 있었을까요? 영화 '서울의 봄'이 2023년 12월 상영돼 1312만 명이라는 관객 수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흥행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년 뒤, 영화에서나 보던 계엄령이 우리의 삶으로 될 뻔했다.

2024년 12월3일 밤 10시 27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1979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을 선포했다. 늘 평화로웠던 일상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도 있는 포고령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령 자체가 우리에게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재난문자는 발송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명분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현정지 세력 중에서 중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내세웠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근간을 흔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는 자유민주주의인가?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대통령은 그저 본인의 안위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1948년 이곳 순천대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인해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라도 및 경상도 지역의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피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 속,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는 무기력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소식을 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제 제가 직접 느낀 바로는 그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어제 필자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한창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던 분위기에서 비상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당장 지금 옆에 있는 내 친구, 선배, 후배가 내일이면 없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그리고 나 또한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내일의 안위를 서로 걱정하며 술자리를 파한 후, 집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그저 TV 뉴스에서 비추주는 국회의사당만을 보며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무력감과 공포를 둘 다 느꼈다. 지방이라는 이유로 직접 현장에 가서 도움을 못 준다는 무력감. 그리고 계엄군 철수 약속 후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던 역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그것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 국회의원을 무력으로 체포 후 감금시킨 뒤 계엄령을 다시 선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슴 졸이며 미디어를 붙잡고 있었던 게 대다수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당면 상황이 무섭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제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후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를 돌릴 때, 어머니께서는 '당분간은 몸조심, 말조심하고 나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는 차마 어머니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이 땅 위의, 대한민국의 대학생이라면 마땅히 불의에 맞서 싸우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옳으니까, 나는 나의 방식으로 투쟁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알겠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수호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적극적인든 소극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기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투쟁하길 바란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적어도 이 사태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았으면 한다. 남의 손으로 얻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투쟁의 결과와 승리의 흐름에 편승해 누리지 말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주도적으로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를 지켰으면 한다. 이것이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대학에서 배우는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독자투고

최근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피싱 탐지 앱인 '시티즌 코난'을 모방한 악성 앱 유포가 확산되고 있다. 갈수록 범죄자들의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이번 피싱 사기는 실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앱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가짜 앱을 만들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을 사칭한 피싱 사기는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가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경찰청 앱'이라고 속이는 링크를 클릭하면 앱이 다운로드되어 정상적인 경찰청 앱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앱은 피싱 사이트로 연

공공기관 앱 함부로 다운 받아선 안돼... 피싱주의

결되거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이다.

두 번째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가짜 경찰청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범죄자는 종종 '귀하의 계좌가 불법 활동에 연루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앱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와 같은 긴급한 메시지는 사용자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쉽게 악성 앱에 접근하도록 만든다.

특히 경찰청을 사칭한 피싱 사기는 '공공기관'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든다. 한 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경찰청 앱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앱은 반드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공식 경로를 이용해 다운로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링크나 외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찰청을 사칭한 문자나 이메일이 올 경우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하지 말고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치한 앱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즉시 삭제 조치를 하고 112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배지환 <여수경찰경무과 경무계 경장>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